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무등경기장의 폭격기는 어디로 갔는가

스포츠 경기장에 다시 관심이 들어간다. 얼마나 다 헝스러운 일인가. 한창 코로나가 2차니 3차니 하여 대 유행을 하던 작년에는 거의 무관중 경기였다. 요즘 스포츠는 복합 비즈니스가 되었다. 과거처럼 입장 수입과 팽플릿 판매로 먹고살지 않는다. 선수를 사고팔며 미디어에 중계권을 넘겨 수익을 낸다. 선수의 옷과 기념품 판매도 한몫한다. 그래도 무관중은 큰 타격이다. 더구나 관중 없는 경기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스포츠는 누군가 같이 보고 있고, 그것은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프로스포츠 역사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한 나라는 미국이다. 스포츠가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 실천적으로 보여 주었다. 박찬호부터 김병형이나 최희섭 같은 선수들까지, 그들이 활약하던 무렵 미국 메이저 리그를 자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애국심(?)으로 우리 선수들의 활약에 몰두했지만 나중에는 경기 자체를 즐기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완벽하게 경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현란한 카메라 편집, 뛰어난 선수의 기량, 훌륭한 시설 같은 게 눈에 들어왔다.

야구는 대체로 정적이어서 여유 있는 관람이 가능하다. 선수들이 '액션'을 하는 시간은 매우 적고, 대개는 사인을 교환하고 공을 기다리며 정장이를 끈추세우고 긴장하는 야수들의 눈빛이 경기를 채운다. 야구처럼 배 나온 선수들도 잘하는 스포츠는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야구는 뛰고 질주하는 시간이 아주 적다. 경기 내내 한 번도 전력 질주를 하지 않고도 육 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스포츠가 야구다. 경기장의 선수가 그러하니, 관중들

은 또 좀 느긋한가. 경기 후반에 역전 기미라도 있다면 모를까, 상당수 경기는 큰 긴장 없이 즐길 수 있다. 그것이 야구의 단점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점이 오히려 야구의 진정한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기 사이사이에 관중은 자기 나름대로 '자발적 정신의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 대타는 누가 나올까. 무사 2루에서 나온 강타자를 상대 팀 감독은 거를 것인가. 이런 예측으로 경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여백의 순간들이 야구를 치밀하게 구성하지만, 나는 오히려 스스로 멋대로 즐긴다. 경기가 어찌 되든 맥주를 사 마시고, 치킨을 뜯거나, 그저 멍하니 푸른 잔디를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곤 한다. 그래도 되는 인기 스포츠는 아마 없을 것 같다. 다른 구기 스포츠라면, 끊임 없이 선수의 움직임과 공을 쫓게 되지 않는가.

옛날 무등경기장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으로 워낙 많이 보았다. 왜냐하면 해태가 늘 우승하기도 했고 최고 인기 팀이니 중계 편성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전 경기가 스포츠 채널로 중계되던 때가 아니고 공중파로 하던 시절이라 중요 경기 혹은 인기 팀 경기가 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무등경기장의 관중들은, 아니 전국 어느 경기장이든, 관중들은 느긋하게 경기를 즐기지 않았다. 고향을 지고,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때로는 실수하는 자기 팀 선수나 감독을 비난하면서, 세 시간이 넘는 동안 거의 불사르듯 경기를 보았다. 마치 유럽 축구 팀 응원들이 90분 내내 절대로 자리에 앉지 않고 고향을 지르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다.

다만 우리 관중들은 주로 앉아 있었다는 것만 달랐

다. 당시 야구는, 어쩌면 스포츠라기보다는 전투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컬러 티브이 화면에 비치던 당시 야구장의 황폐한 외야가 기억난다. 잔디라고는 하지만 등성등성 모 심어 놓은 것 같은 풍경이었다. 잘 갈무리되어 있지 않아 외야에서도 툭 하면 불규칙 바운드가 되어 외야수 머리 위로 공이 튀어 올랐다. 배수가 잘 안 돼 비만 오면 논바닥으로 변했다. 야구선수는 양말을 올려 신는데, 당시 그걸 '농구 패션'이라고 불렀다. 모내기 해 놓은 것 같은 엉터리 잔디 구장에 비가 오면 질퍽거리는 내외야의 선수들은 정발로 감매기를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최근에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한 경기장이 중계 화면에 잡힌다. 관중들은 훨씬 신사답고, 경기장에 절대 무얼 던지지도 않는다. 천천히 경기를 즐긴다. 그 모습이 보기 좋다. 그렇지만 자주 나는 80년대 논바닥 경기장과, 좁은 경기장인 까닭에 불펜도 따로 없어서 파울라인 앞에서 몸을 풀던 선수들이 생각난다.

무사무사한 아우리를 가진 선동열 선수도 물론이다. 그가 마무리투수이던 때, 몸만 풀면 상대방이 조금해져서 경기를 스스로 만장다던 일화가 있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팬시리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내가 선동열 선수를 처음 본 건, 1980년 4월의 어느 날, 서울운동장 야구장이었다. 그는 광주일고 2학년 선발투수였다. 어쨌든 그의 불같은 강속구와 고개를 끄덕일 때의 여유 있던 그의 표정이 생각난다. 물론 절대로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게 우주의 불리다. 선동열 선수는 그렇게 내 기억에서만 열심히 공을 던지고 있을 뿐이다. <음식 칼럼니스트>

기고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거는 기대



정현복
광양시장

인식한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에 이어졌기 때문이다. 보육재단의 모금액은 현재 광양시 출연금 25억 원을 포함 시민·단체·기업들의 후원금 40억 원을 합해 총 65억 원이다.

이 중 20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 체험 및 문화 공연비 지원, 신학기 입학 축하금 지원, 졸업사진비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 AI로봇 보조교사 지원, 똑똑이 디딤돌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다. 보육재단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의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제도권 밖의 사업들이다. 제도권을 벗어나서 보육 현장까지의 틈새에서 학부모와 보육 관계자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며 요구하는 사업들을 중점 발굴해 추진해 왔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육재단의 재정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어 다행이다.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남짓이면 5만 계좌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의 재정 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광양 시민들을 비롯한 후원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재정 운용과 사업 내용 등 내·외적으로 그 기대와 바람에 부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단체·기업을 포함한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1기적 1계좌 및 갖기 운동'을 통해 후원금 증대에 나서야 한다. 1계좌 금액을 3000원으로 정한 취지는 초등학교생들이 한 달에 아이스크림 한 개 사먹을 돈만 아낀다면 지금의 형·누나들인 그들이 미래의 동생들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모

든 가정이 후원에 참여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하고 나아가 지역의 양육 책임제를 실현하는 의미도 있다.

다음으로 기존보다 규모나 질적으로 우수한 선진 보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권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대통령상을 받은 '똑똑이 디딤돌' 사업의 경우 통학 차량 감편 예방 시스템인데, 전국 최초로 보육재단에서 추진해 현재는 '어린이 하자 확인 장치'라는 명칭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될 정도로 전국 표창화된 좋은 사례다.

위험감들이 아침저녁으로 아이를 맡기고 찾으러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부모의 출근과 동시에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그 아이 집을 전담해서 돌보아 주는 '진 할머니 같은 도우미' 등의 획기적인 사업도 시도해 볼 만하다. 그동안 광양시는 보육재단 출범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같은 해 2월 '아동친화도시' 비전 선포, 2019년 1월 전국 최초로 보육 관련 실국 단위 행정조직 신설, 2021년 3월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등 하드웨어 측면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

광양시와 보육재단은 이러한 좋은 여건을 활용해 '아이 잘 키워 주는 보육 으뜸 도시 광양시' 만들기의 주체가 되고, 학부모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과 실질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광양시와 보육재단이 선도하는 선진 보육 정책들이 저출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전 지역에서 영유아가 늘어나는 반가운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간호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다

호사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간호사는 의료기관 외에도 장기요양 기관,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 어린이집, 학교, 산업체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과 일부 보건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 전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간호 관련 법안들이 11개 부처 90여 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관된 간호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달라진 보건 환경 속에서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간호 돌봄 서비스가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간호 관련 법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노인 인구 증가로 질병의 양상이 만성질환으로 변화함에 따라 1980년 후반부터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즉 간호 인력을 통해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생활 습관을 위한 지속적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의료 이용률을 감소시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간호법은 1903년 미국이 간호업무법을 제정한 이후 세계 90여 개국이 만들어 발전시켜 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미 1948년에 간호사법과 조산사법이 제정돼 인구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책을 변화시켜 갔다.

그동안 대한간호협회에서는 2003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2005년 17대에 이어 2019년 20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발의됐지만 보건 의료 관련 단체의 반대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간호정책과 신설 등 4개 조항에 대한 정책 협약을 했고, 1975년 폐지됐던 간호 전담 부서의 신설이 확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국민의당) 의원과 서정숙(국민의힘) 의원도 간호·조산법과 간호법을 각각 발의, 3개 법안 모두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여야 3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들은 모두 인구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환자 중심의 간호·돌봄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호 인력의 역할과 업무 범위, 그리고 양질의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등을 담은 것이다.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지금의 의료법은 치료와 의료기관 중심의 법률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그리고 통합적인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담아낼 수 없다. 간호법은 의료기관에서 치료적 의료행위를 조력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증진시켜 건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바람과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을 제정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社說

경찰이 자체 종결한 수사 과연 믿을 만한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점이다. 한때 이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줄어든 반면 경찰의 재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이 올해 1분기(1~3월)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89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6314건)에 비해 22.4%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 없다고 판단하는 '불송치 결정' 권한을 갖게 된 뒤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사건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의 재수사 및 보완 수사 요구는 크게 늘어났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 90일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올 들어 광주 경찰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모두 72건이었다. 여기에 경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례

도 278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 송치 사건(4898건)의 5.6%에 해당한다. 특히 보완 수사 요구는 지난 1월 67건에서 2월 86건, 3월 125건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경찰이 경찰 수사 과정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여부 등을 파악해 요구하는 시정 조치도 올 1분기에 21건에 달해 경찰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남경찰청은 재수사·보완 수사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개마저 거부해 미흡한 수사력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물론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이후 무분별하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소리로 나온다. 하지만 경찰은 미흡한 초동수사와 부족한 수사력이 주요 원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책임 수사 실현을 위한 내부 심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기업 적자에도 임원 연봉 올렸더니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자리한 열두 개 공기업·기관 가운데 여섯 곳이 2020년 상임 임원 연봉을 올렸고, 다섯 곳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전년보다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이라면 실적 악화로 임금을 줄이거나 감원할 상황인데도 일부 공기업·기관은 오히려 적자와 당기순이익 감소에도 임원 연봉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올린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2개 공기업·기관 가운데 5개사가 적자 전환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당기 순이익이 663억 원 가량 줄어든 한전KPS(주)의 경우 임원 연봉을 평균 5600만 원 넘게 인상했다. 이로 인해 상임 임원은 전년(1억2593만 원)보다 44.7% 증가한 1억8227만 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2개 공기업·기관들의 임원 연봉 인상률은 0.4%

(평균 연봉 1억6392만 원)였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공기업·기관들은 고임금과 안정적 고용 특성 때문에 '꿈의 직장' 또는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공기업은 낙산인 인사와 방만 경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많았다. 한데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공기업 윤리마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적자에도 임원 연봉과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이 같은 공기업·기관들의 행태는 청년 세대를 좌절케 하며 시민들의 눈에도 쉽게 보일 리 없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 노력 대신 임원들의 연봉 등을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의 연봉이나 업무추진비 등이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공적 부문을 담당하는 공기업·기관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며칠 전 동화 '애린왕자' (도서출판 이팝)를 접했다. 잘못 쓴 게 아니다. 생텍쥐페리의 작품. 그 '애린왕자' (1943)가 맞다. 서점에서 처음 '애린 왕자'라는 제목과 '광상도'라는 단어가 적힌 책 표지를 봤을 땐 "이게 뭐지?" 싶었다. 책을 펼치자마자 '똥'하고 웃음이 나왔다. 보아빠이 꼬끼리를 먹는 유명한 삽화에 이어 "저기…… 양 한 마리만 기레도"라며 등장하는 애린왕자의 모습이라니.

'애린왕자'를 경상도 사투리로 바꾼 '애린왕자'에는 많은 이들이 각해 보면 우리는 표준 사투리로 변형돼 실렸 다. '4시에 나가 온다' 사투리를 순화시켜야 할

'애린왕자'

대상으로 여겨 왔다. 코로나19로 '로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진 건 다행이다. '애린왕자' 전라도 사투리 버전도 곧 출간되는 모양이다. 잘 모르긴 하지만 '애린왕자'는 전라도 사투리로도 '애린왕자'로 번역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목이 중요할 터인데, 더 적합한 전라도 말은 무엇일까 궁금하다. 사실, 이 글을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써 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의료칼럼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광주보건대 교수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인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여 명에 달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오는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2036년에는 30%를 넘어서고, 40년 후인 20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의 거주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여성 노인의 증가, 사별한 고령 노인의 증가, 그리고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줄게 되면서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 광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1인가구는 3만 8000여 세대에 달한다. 2027년에는 5만 8000가구, 2037년에는 8만 5000 가구로 증가하고, 2047년에는 10만 가구를 훌쩍 넘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노인 1인가구의 70% 이상이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대))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